1970년대 ‘한국 민속촌’ 건립 과정과 시대적 의미 고찰

Development of Korean Folk Village in 1970s and its Historical Meaning

김지홍*
Kim, Ji-Hong

전봉희**
Jeon, Bong-Hee

Abstract

Korean Folk Village was founded in 1974 as the first open-air museum in Korea. It consists of over one hundred traditional Korean houses and buildings. Most of structures in the Village were reproduced or newly constructed in traditional style. Some houses were used as craft shop and folklore performance. Preservation of vernacular architecture by the government began in the late 1960s in Korea. The development of the Village was initi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sake of attracting both the foreign and domestic tourists.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focused on national culture to justify their dictatorship. The government drove a very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1970s and Korean society was in the midst of modernization leaving many traditional landscapes behind in the memory. The Village was aimed to appeal the Korean people's nostalgia and at the same time to combine their folk into the modern nation.

Keywords : 1970s, Tourism, Korean Folk Village, Folklore Open-air Museum, Preservation of Vernacular Architecture

주요어 : 1970년대, 관광, 한국 민속촌, 민속촌, 주거 보존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경기도 용인의 ‘한국 민속촌’은 한국 각 지방의 전통가옥을 전시하는 일종의 야외 건축 박물관¹⁾으로 1974년 10월에 개관하였다. 당시, 민속촌의 조성은 서울에서 고속도로로 1시간 남짓 거리에 기존의 마을을 철거하고, 전통양식의 기와집과 초가를 이전·복원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무렵 한국에서는 주택과 마을에 대한 보존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각 지역의 전통적 경관이 변해나가고 있었다. 한옥은 전근대시대의 주거형식으로 문화재나 관광시설로 여겨지면서, 일상생활과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의 문화재 정책 변화와 민속촌 개발과정은 어떻게 이전 시대의 주거가 현대의 주거와 분리되어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며, 전통을 활용한 개발사업의 이른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박정희 시대(1961~1979)의 개발독재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내놓는 연구가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의 영역 역시 정치체제와 경제개발 정책 위주에서 문화정책 분야로 확장되었다. 국가주도의 강력한 문화정책은 에릭 홉스봄이 말했던 19세기 말 유럽의 국민국가들이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떻게 전통을 이용하였는가와 견줄만한 내용으로 여겨지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역사 및 전통의 이용과 창조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되었다.²⁾ 또한 박정희 시대의 유산을 폭력과 억압을 통한 강압적 지배의 결과라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대중과 독재권력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로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각이 등장하였다.³⁾ 이러한 연구들은 역

1) 흔히 민속촌이라고 불리는 전통 건축물 전시시설은 야외 박물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Outdoor (Architectural) Museum 혹은 Open-air Museum이라고 한다.

2) 이와 같은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전재호(1998).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재호(1998).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 83-106.

은정태(2005). 박정희시대 성역화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15), 241-277.

최연식(2007).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2), 43-73.

3) 독재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동의와 자발적 동원 체제를 만들어내는 다양하고 정교한 헤게모니적 장치들이 동원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상의 규범이나 전통이나 관습, 문화적 관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대중독재론’이 대표적이다(임지현·김용우(2004). 대중독재 1: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서울: 책세상. 참조).

*정회원(주저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수료

**정회원(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13-D01100)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주거학회의 춘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사학 혹은 사회학 분야에서 문화재 관련 정책분석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각 사업의 구체적 실례나 물리적 증거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 있다.

한편, 건축사 분야에서는 6~70년대 건축에서 전통 요소의 차용과 그 정치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 연구의 경우에는 주목하는 대상의 범위가 ‘위로부터의 역사’에 한정되어 기념비적 건축물이나 비주거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논의가 현대건축물에서 나타나는 전통의 표현과 재해석을 위주로 한다.⁴⁾ 이들의 주요 내용은 6~70년대 건축가들에 있어 모더니즘 건축에서의 전통 표현이 중요한 당면 문제였으며, 국가주도의 사업들에서 전통 목조건축의 외형을 차용한 콘크리트 건축물을 요구하였고, 직설적인 전통풍의 외관을 가지는 많은 건축물이 설계되었지만, 오히려 건축가나 엘리트 그룹은 재해석되고 추상화된 전통요소를 가지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결론이다.

한국 민속촌의 사례는 정부가 기념비적인 건축이 아닌 주거건축을 어떻게 국가의 기념 대상으로 바꾸어나갔는지, 그리고 민속촌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전통적인 마을의 원형이 비일상의 영역으로 재조직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생각은 기념비적 건축 즉 전근대 시대의 고급건축이 그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흔히 선택된다고 생각되는 것과 달리, 국민 국가의 성립과정에서 민속이나 하층의 문화 역시 국민통합을 위한 문화로 포섭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로, 야외박물관의 시초로 기록되는 스웨덴의 스칸센(Skanssen) 민속촌의 경우 당시 민족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고고학적 유물은 이전 왕조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근대국가와 연결될 수 있는 전통으로서 서민생활의 민족적(국가적) 특징에 주목한 시도였다는 점⁵⁾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일본의 민속학이 역사 바깥에 있던 평민의 생활을 ‘국민’이라는 주제로 해석해가는 학문이었다고 말하는 일국민속학에 대한 비판 역시 주지할만하다.⁶⁾

본 연구에서는 1960~70년대에 ‘민속촌’이라고 하는 시설이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서 등장하였는지를 살피고, 한

국 민속촌 조성사업의 과정과 계획내용을 살핌으로써 과거의 주거건축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 그러한 재구성이 갖는 시대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다시 건축에서의 전통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의 논의는 보다 주택과 관련된 ‘한옥’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자원이자, 환경과 관련된 목조주택으로서의 전통 주거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여전히 국가이미지와 관광수익을 노린 것이다.

한옥마을의 조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전에 시도하였던 전통 스타일의 마을을 돌아보는 것은 새로운 계획을 위한 참고사례로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1960년~80년 사이의 신문자료, 공문서 등을 통해 ‘한국 민속촌’ 건립 과정과, 그 계획 내용을 알아보았다.

신문자료는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조선일보 등을 참조하였으며, 공문서의 경우에는 주로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1과(1974)의 민속촌관계자료철(관리번호: BA0120826)⁷⁾, 유형문화재2과(1979)의 민속촌 고증관계 서류철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민속촌 조성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진행하였으므로, 당시의 다른 문화재 조성사업과는 달리 공식적인 보고서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공문서에 첨부되어있는 각종 보고서 및 계획안을 바탕으로 부족하나마 당시의 진행상황을 정리하고, 2년간 4차례 있었던 심의위원회에서의 토의내용에 중점을 두어 전통건축 및 경관과 관련된 당시의 중요한 논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항공사진과 국가기록원 소장의 1970년대 한국 민속촌 사진자료를 대조하였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문헌분석으로만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야외박물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찾고, 1970년대 당시의 ‘민속촌’ 단어의 쓰임을 살펴보아, 당시

7) 서류철 내 서류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건 제목	문서번호	페이지
1	민속촌건립사업계획변경	문재이1081.5-3650	1
2	회의개최결과보고	문재이1081	2~14
3	민속촌건립심의위원회개최	문재이1081.5-3508	15~39
4	민속촌건립사업계획변경	진홍1530-518	40~53
5	민속촌건설행정지도위원회회의소집	진홍1530-311	54~65
6	민속촌건립협조요청에대한회신	문재이1081.5-5941	66~125
7	민속촌건립심의위원회회의록(제2차)	-	126~130
8	민속촌건립에대한협조요청	진홍1530-1210	131~159
9	민속촌건립심의위원회제1차회의록	-	160~179
10	민속촌건립사업계획서심의요청	-	180~231
11	민속촌건립사업추진을위한협조요청	진홍1530-652	232~259
12	민속촌설치준비를위한관계관회의개최	문재이1081	260~309

4)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참고할만하다.

양상현(1993). 한국현대건축에 있어서의 민족형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순영(1998). 한국 근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표현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훈(2002). 1970년대 한국전통양식 콘크리트조 건축물 보존현황.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진(2002). 1960-70년대 한국 현대건축의 전통론과 그 구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기형(2007).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건립배경과 건설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Aronsson, Peter & Magdalena Hillström (eds) (2005). Kulturarvens dynamik. Det institutionella kulturarvets förändringar. Norrköping: Tema Q, Linköpings universitet, 70.

6) 고야스 노부쿠니(2007). 일본근대사상비판-국가 · 전쟁 · 지식인. 서울: 역사비평사.

의 ‘민속촌’ 개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관련 관광정책을 통해 한국 민속촌 건립의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였다. 한국 민속촌 계획과정을 자세하게 살펴 그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실제의 계획내용에서 나타나는 마을과 전통건축의 재구성 방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II. 민속촌의 정의와 범위

1. 야외 건축 박물관

야외박물관(Outdoor museum 혹은 Open-air museum)의 건립은 19세기 말에 북유럽에서 기원하였으며, 각국의 민족주의와 맞물려 20세기 후반의 국제적인 현상으로 발전하였다. 야외박물관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 전시한다는 그 전시방식에 초점을 둔 용어이다. 따라서, 그 전시 내용은 풍속, 회화, 조각, 건축물, 환경시설 등으로 다양하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나 지역의 옛 풍속과 당시의 건축물을 전시하는 야외 건축 박물관이다.

야외 건축 박물관은 장소와 전시 건물의 고유성에 따라 그 성격이 다양하다. 즉, 원래의 마을이 보존되는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야외박물관의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대지에 중요한 건물이 이축되어 전시되는 형태일 때도 있으며, 새로운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복원하여 조성한 경우도 있다.

야외박물관의 가장 이른 사례인 스웨덴 스톡홀름의 스칸센(Skansen)이나 노르웨이 오슬로(Oslo)의 노르스크(Norsk) 민속박물관은 민속지학(ethnography)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박물관 전시를 위한 매체로서 발명되었으며, 민속리바이벌(folk-revival) 디자인에 나타나는 민족주의적 감각과도 연관되어 있다. 민속촌의 전시는 대부분 민족적(국가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며, 특정 국가나 지역의 원주민 문화를 보여준다.⁸⁾

미국의 경우 야외박물관은 유럽보다 늦은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가옥박물관(house museum)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하였다.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의 정의에 따르면 야외박물관(Outdoor museum)은 구조물들이 복원·재건축 혹은 이축되어 복원·재창조되거나 복제된 마을이며 그 목적은 역사와 문화적 환경, 시대 혹은 활동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⁹⁾

미국의 야외박물관은 사립 시설로서 관광사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1960년대 이후 역사를 재연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해왔으며, 역사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교육적 기능과 테마파크적인 성격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국의 민속촌 건립 붐은 독립 200

주년인 1976년 무렵에 절정에 이르렀으며, 당시 북미의 민속촌은 약 500여개소에 다다랐다.¹⁰⁾

이처럼 70년대 한국의 민속촌은 시기적으로 이미 구미에서 다양한 야외박물관에 대한 사업들을 모델로 하였으며, 가깝게는 1965년 개장한 일본의 메이지무라(明治村), 1967년 개장한 니혼민가엔(日本民家園)에 대한 인지 하에서 진행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야외박물관이 속속 지어지고 있었다.

2. 민속촌과 민속마을의 개념

민속과 주거를 전시하는 야외박물관에 대해 ‘마을(village)’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예는 흔하다. 국내에서는 초기부터 ‘민속촌’과 ‘민속마을’의 용어가 섞여 사용되었다. 일부의 연구에서는 ‘민속촌’은 특정지역을 개발하여 인위적으로 유형의 민속자료를 설치한 것으로, ‘민속마을’은 기본적으로 자연취락 단위 전체(혹은 대부분이나 그 이상)를 보존지구로 지정한 것을 구분하기도 한다.¹¹⁾ 그러나 현재의 국어사전에서 ‘민속촌’은 (1) 고유한 민속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 (2) 전통 민속을 보존하고 전시할 목적으로 민속자료가 될 만한 것을 모아 인위적으로 만든 마을과 같은 두 가지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민속촌과 민속마을은 동의어이며, 장소의 역사성과 무관하게 현재의 전시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는 ‘야외박물관’이라는 용어가 기존 마을의 고유성과 무관하게 현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쓰이는 것과 유사하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1977년 “‘민속마을’ 지정기준”에서 ‘민속마을’을 ‘전통적인 민속자료가 집중적으로 보존되어 전형적인 한국마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촌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전통 주거를 민속자료로 분류하고 있는 문화재 행정체계에 따른 임의적인 정의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전통’주거를 ‘민속’으로 치환하는 오류는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에서는 ‘민속’이라는 용어가 지닌 계층성과 관련하여 ‘민속마을’이라는 명칭을 거부하기도 하였다.¹²⁾

70년대의 대중신문에서의 용례를 보면, ‘민속촌’과 ‘민속마을’의 용어는 처음부터 뚜렷한 구분 없이 섞여 쓰인

10) 미국의 야외박물관은 모두 사설로서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며, 각 시설의 규모의 편차가 크다. 미국의 야외박물관의 테마파크적인 성격은 디즈니랜드(1955 개장), 디즈니월드(1971 개장)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그러나, 월트디즈니의 테마파크에 대한 구상 역시 미국의 야외박물관에서 시작되었다(Rentzhog, Sten (2007). Open Air Museums: The History and Future of a Visionary Idea. Östersund: Jamtli Förlag, 237-240. 참조).

11) 김용환 · 오석민(1995). 전통문화의 보존과 민속마을. 비교민속학, 12, 44.

12) 안동 하회마을의 경우 1983년 중요민속자료 지정 당시의 명칭은 ‘하회민속마을’이었으나, ‘하회마을은 류성룡 선생을 위시한 석유(碩儒)들을 배출한 마을로서 단순히 민속(民俗)만을 기리는 마을이 아니’라는 주민들의 변경 건의에 따라 1984년에 ‘안동하회마을’로 지정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세계유산목록에는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한국의 “역사마을”’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 등재되었다.

8) Chappell, Edward A. (Sep., 1999). Open-Air Museums: Architectural History for the Mass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58(3), 334.

9) Murtagh, William J. (2006). Keeping Time: The History and Theory of Preservation in America, 3r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75.에서 재인용

것으로 보이며, ‘관광민속촌’이라는 용어의 쓰임도 보인다.¹³⁾

다음 장에서는 ‘한국 민속촌’ 계획 이전의 ‘민속촌’과 ‘민속마을’과 관련된 정책과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농촌의 근대화와 전통문화의 보존, 상품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II. 민속촌 건립의 배경

1. 민속촌과 문화재 보존

민속촌 건립이 구상되고 진행되던 60년대 후반은 주택 문화재에 대한 조사¹⁴⁾, 지정과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1963년에는 아산 맹씨행단이 사적으로, 안동 양진당이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1967년에 선교장이 중요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되었다.¹⁵⁾ 1971년, 서울의 한옥보존지역이 설정된 것 역시 전통 주거양식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를 띠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박정희 정부는 군사정변 이후부터 문화재와 전통문화를 중시하였지만, 전반적인 문화재 정책은 1960년대 후반에 크게 전환되었다. 1968년 문화공보부의 발족 이후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사업들이 실시되었고, 문화재의 보존정책도 60년대의 ‘지엽적인 보수 위주’에서 70년대에는 ‘적극적인 정비·조성’으로 변화하였다.¹⁶⁾ 아산 현충사, 칠백의 충 등에서의 사업에서 나타나듯, 당시의 사업들은 기존 장소를 재계획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존행위를 넘어 새로운 유적을 만드는 것에 가까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에는 일종의 테마파크로 받아들여지는 민속촌의 개발 역시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¹⁷⁾ 문화재관리국에서는 1972년의 『민속촌 설치안』 구상에 앞서 『한국전통생활문화유산 보호관리계획(안)』(이하 ‘계획안’)¹⁸⁾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의 목적은 ‘한민족의 전통적 생활문화의 유산을 보존·전시하여 겨레의 긍지와 자존의식을 함양하고 한민족사에 연연해온 민속품물과 미풍양속을 보존 선양,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 1)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 고유한 민속과 생활양식의 절멸위기, 2) 민속관광여건의 부족, 3) 민속 박물관 시설 미비 4)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민속자료 지정이나 도시 계획법 상의 보존지역 지정 등의 시행 미비 등을 꼽으면서, 그 대책사업으로 1) 전국 민속경관지(民俗景觀地) 보존, 2) 한국 민속관의 확장 3) 민속관광단지(민속촌) 건설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민속경관지 보존사업은 대상지 종합조사-지정-보호 관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종합조사는 72년에 완료하고, 지정대상지를 확정, 그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었다. 전국의 26개 후보지가 열거되었다. 민속경관지 보존사업은 실제 진행과정에서 좀 더 문화재 보존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민속경관지’는 ‘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1974년에 안동 하회, 월성 양동, 제주 성읍, 승주 낙안, 강원 신리 등 5개 마을이 ‘민속자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¹⁹⁾, 1973~77년의 조사 후에 1977년에는 양동, 하회, 낙안, 정의, 명월리가 ‘민속마을’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민속경관지 보존사업에서도 처음부터 ‘관광’의 목적이 고려되었다. 지정된 민속경관지에서 경관을 훼손하는 현대시설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새마을 건설’의 시범민속부락으로 정화하여 아름다운 고향의 잘사는 마을로 가꾸고자 하였으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민속관광지로 지정하고, 관광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전통생활문화의 면모를 내외에 선양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관리방향이었다.

민속관광단지(민속촌) 건설 사업의 경우 서울 근교에 대단위 민속촌을 건설하는 5개년 계획이었는데, 민속촌에는 시대별 가옥의 변천과정, 복식의 변천과정, 옛 생활문화 등을 전시하고, 고유음식이나 공예품을 제작·판매할 뿐만 아니라, 위인이나 선열 관련 자료의 전시장도 겸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계획안’에서는 외국의 저명한 민족보존시설 사례로 미국, 유럽, 일본의 총 31개 ‘Open-air Museum’을 열거하면서, 각국의 민속자원이 그 나라 관광수익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국민에게 향토애와 조국애, 동포애를 고취하는 민족유산으로 선양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처음부터 ‘민속촌’은 단순한 위락시설이 아닌 일종의 건축물 보존 방법이자 박물관적인 교육기능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1973년도의 안동댐 개발로 인한 수몰마을의 이전 문제가 논의되면서, 원래의 건물을 이전해서 보존하기 위한 ‘민속촌’의 실질적인 필요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후 ‘한국 민속촌’ 사업이 1개년 계획으로 축소되고 청와대와 교통부가 주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급하게 진행되는 동안 문화재관리국 내에서의 ‘한국 민속

13)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삼척 신리 일대의 보호구 지정을 ‘민속촌’으로 표현하고 있다(동아일보, 1974. 8. 28. 보호구로 지정될 ‘문명등진 두메’-화진촌을 민속촌으로. 참조).

14) 문화재관리국에서는 1967년 말경 전국의 시군 교육청을 통하여 30칸 이상 되는 개인주택으로 건립이후 150년이 지난 고가옥의 실태조사(서면)를 시행하였는데, 서울에 2, 강원예 2, 충남예 2, 전남예 2, 경북예 2, 경북예 10동이 남아있었음이 파악되었다(김광인(1970). 경북지방의 고가옥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1), 93. 참조).

15) 일제강점기에 보물로 지정된 주택은 1938년 지정된 강릉 오죽헌(현 보물 165호)을 시작으로, 임청각 정침 군자정, 강릉 해운정, 회덕 동춘당의 총 4건이다. 이들 대부분은 목조의 격식이 높은 별당건축이다(문화재관리국(1996). 지정문화재 목록. 참조).

16) 전재호(1998).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 89-90.

17) 동유럽국가와 일본,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문화유산 관련 사업이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18) 문화재관리국. 한국전통생활문화유산 보호관리계획(안). 문화재관리국. 1972. 5. 11. 제2분과 제1차 회의 회의록,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

19) 동아일보. 1974. 5. 30. 안동 하회동, 월성 양동, 제주 성읍리, 승주 낙안성, 강원 신리 - 민속자료 보호구역 선정 - 문화재관리국, 원형 인별 막개

촌’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74년 11월의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 민속촌’에 대해 문 통부의 위원회에서 건의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에만 치중하여 민속 문화의 전통성이 변형된 시설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²⁰⁾

2. 민속촌과 외국인 관광

앞의 ‘계획안’은 문화유산의 보호에 중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의 목적에 ‘관광자원화’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실행방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관광자원 발굴과 전시 시설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민속촌의 건립은 실제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에 그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72년에 ‘외국 관광객 50만 명을 유치, 1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관광개발 5개년 계획안」 발표 하였다. 그 실행방안의 하나가 서울, 경주, 제주근교에 민 속, 예술, 음식, 토산물 오락시설을 갖춘 관광민속촌을 건 설하는 것이었다.²¹⁾ 그해 11월에 교통부에서는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확정하는데, 이 내용 중에 서울근교에 오락 시설과 전통문화토산품을 갖춘 “관광민속촌”을 건설하고 새마을사업 모범부락을 관광코스에 넣는다는 것이 포함되 었다. 한편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던 ‘기생관광’을 없애고, 수학여행이나 가족여행의 비율 을 늘리기 위해서는 박물관, 고적개발, 민속촌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²²⁾

표 1. 국적별 관광객입국현황(%)

연도	미국	일본	교포	기타	계(명)
1962	43.3	12.0	14.8	29.9	15,184(100%)
1965	42.3	15.3	25.3	17.1	33,464(100%)
1968	40.7	24.5	18.0	16.8	102,748(100%)
1970	31.9	29.8	19.5	18.8	173,335(100%)
1971	24.9	41.5	21.6	33.6	232,795(100%)
1972	17.2	58.6	14.9	9.3	370,656(100%)
1973	11.4	69.9	10.8	8.8	679,221(100%)

교통부 관광국, 1974. 6, 통계자료

1972년 이후 본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민 속촌이 계획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사례들은 대부분 전통식 가옥 몇 동과 물레방아 등을 신축하여 전통 농촌 의 풍경을 재현하는 수법이었다.²³⁾ 부산의 금정산성 민속 촌 계획은 금정산성(사적 215호) 일대의 기존 마을을 관 광민속촌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산성촌의 원형을 복원하

고, 민속촌과 유원지도 새로 건설하는 대규모의 계획이었 다.²⁴⁾

한편 ‘민속촌’은 아이러니 하게도 주택개량에 앞장서던 새마을 운동과 함께 이루어졌다.²⁵⁾ 경기도 양주군 화도면 묵현2리는 당시 새마을 운동의 10개 시범취락 중 하나였 는데, 이곳에 전통식 초가집 3채를 짓고, 연자방앗간, 물 레방앗간, 민속관 등을 설치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 여주고자 하였다. 이로써 한국 농촌의 전통적인 옛 모습 과 가장 근대적인 새로운 모습을 함께 갖추게 하여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농촌의 옛 모습과 근대 화된 모습을 함께 소개하겠다는 것이었다.²⁶⁾

IV. ‘한국 민속촌’ 계획 과정

1. 민속촌 초기안

대규모 민속촌에 대한 계획은 1965년 무렵부터 이미 구 상되어 있었다. 태릉 일대에 시대별 집을 짓고, 당시의 옷 을 입은 사람들이 당시 모습을 재현하며, 인간문화재를 이주시켜 민속품을 팔게 하려던 것이었다.²⁷⁾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장소도 서울 근교로 옮겨지게 된다.²⁸⁾

1972년 11월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작성한 『민속촌 설치 안』(이하 ‘설치안’)²⁹⁾에서는 민속촌의 건설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었다. 전시가옥은 양반주택과 민가로 나뉘며, 양 반주택에서는 실제 주택을 이건하여 ‘99칸집’ 및 특색 있 는 양반가옥 4~5동을 전시하고자 하였다. 민가 부분에서 는 농가를 70여동 이건하여 자연부락의 형태를 조성하는 계획이었는데, 농촌, 산촌, 어촌의 특색을 보여주는 가옥 에 제주도 민가를 추가하였다. 공연장을 설치하며, 방앗 간, 대장간 등의 각종 농촌 부대시설을 구비하여 민속놀 이나 풍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민속촌에는 유원지 시설도 계획되었다. 민속촌 내에 동 물원, 식물원, 스케이트장 등을 두는 것은 스웨덴의 스칸 센(Skansen)의 예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³⁰⁾

<그림 1>의 배치도를 보면 진입도로에 ‘경부고속도로³¹⁾

23) 천마산 도립공원의 민속촌계획의 경우 기와집 20평 1채, 초가집 20평 1채, 연자방아, 디딤방아, 물레방아, 토산물, 재래식 농기구 전시 장 등을 두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972. 11. 8. 천마산 도립공원과 민 속촌도 건설키로.)

24) 동아일보. 1972. 9. 7. 금정산성일대 「민속촌」으로.; 조선일보. 1972.9.7.. 부산에도 「민속촌」-금정산성촌 18억 들어.

25)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1978년에 군당 1개, 도내 15개 마을을 ‘민 속보존마을’로 육성하여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이 근대화 되어감에 따라 사라져 가는 풍물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26) 매일경제. 1972. 6. 30. 물레방아 도는 마을.

27) 경향신문. 1965. 3. 20. 태릉에 민속촌 우리나라 역사 한눈에 보게끔.

28) 민속촌 부지는 용인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강남개발지역인 영동 구획정리지구 남쪽 원릉, 인릉 주위로 정해지기도 했었다(동아일보. 1973. 2. 5. 민속촌 터 인릉 변에 내년 초 완공).

29) 문화재관리국(1972. 11). 민속촌 설치안.

30) ‘설치안’에서는 외국의 사례로 스웨덴의 스칸센(Skansen)과 일 본의 메이지무라(明治村)에 대해 주로 설명하였다.

20) 문화재관리국. 1974. 11. 17. 제1,2,3분과 제2차 합동회의록, 문 화재위원회 회의록.

21) 매일경제. 1972. 3. 20. 관광권 개발 정부·여당 5개년 계획. 1972. 6. 10일자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관광정책의 문제점 에서는 일 본을 비롯한 외국관광객이 부쩍 늘어났으나, 고유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에 「민속촌」을 세우는 문제를 서둘러 추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음.

22) 동아일보. 1973. 5. 16. 일인관광 폭주 그 실태와 수용 대비책.

라고 썩어져 있고, 입구에 주차장과 숙박시설이 있어서, 자동차로 연결 가능한 서울 근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속촌은 크게 입구 쪽의 유원지 영역과 안쪽의 민속촌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두 영역 사이에는 호수와 물길이 있어 유원지 쪽에서 물레방아가 보이는 다리를 건너면 민속촌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어있다. 유원지 영역에는 입구에서 가까운 쪽에 특산물 전시장, 식당, 선물 판매장이 있고, 놀이터와 동·식물원은 뒤쪽에 놓인다. 민속촌 영역은 호수 건너에서부터 평지와 낮은 산으로 되어있다. 산지-기슭-강가로 이어지는 지형을 이용하여 산촌/농촌/어촌을 배치하였다. 산촌에는 강원도 화진 민가를 어촌에는 제주도 민가를 따로 표기하였고, 양반대가(兩班大家) 2채가 표시되어 있다. 모정(茅亭)과 성황당도 각각 한 채씩 계획되어 있다. 그 세 마을은 큰 순환로로 연결되며 순환로 안쪽에는 야외공연장과 민속극장이 있어 민속촌의 중심이 된다.

그림 1. 민속촌 배치도(『민속촌 설치안』, 1972. 11.)

2. 민속촌 계획의 구체화

1972년 12월 28일 문화재관리국 회의실에서 열린 ‘민속촌 건립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문화재관리국 제2분과 외에도 청와대 제3비서실³²⁾, 교통부 관광국, 건설부 지방계획 담당관이 참석하였다. 1부의 주제발표에서 이두현과 임동권이 외국의 민속촌 사례를 발표하고, 장주근이 한국 민속촌의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2부의 종합토론에서 민속촌의 목적이 상업인지, 학술인지에 대한 문제, 진실성의 문제 등이 간략히 언급되었으며, 설계와 내용에는 학자가 참여하고, 자본 투자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³³⁾

민속촌의 부지가 확정되고, 이듬해 3월에는 대통령에게

31) 1968년 착공하여 1970년에 개통되었다.

32) 박정희 정부에서 비서실은 특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설치되었다가 해체되었다. 경제 제3수석비서실은 1972년 5월 관광진흥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가 이듬해 74년 2월 폐지된다. 양윤세 수석비서관은 수출진흥자금에 준하여 장기·저리의 관광진흥자금을 확보하고 용인 민속촌, 영동 유스호스텔, 대규모 호텔 건설을 추진하였다(김정렴(1997). 아, 박정희: 김정렴 정치 회고록. 서울: 중앙M&B, 54. 참조).

민속촌 건립계획이 보고되었다.³⁴⁾ 그 뒤 4월에는 교통부 주최로 민속촌 건립에 대한 회의를 거쳐 관계기관 사이의 협조를 위한 ‘행정지도 위원회’³⁵⁾가 구성되고, 문화공보부에는 기술지원위원회 설치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공보부에서는 문화공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민속촌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속촌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³⁶⁾를 설치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문화재관리국 내에 설치되었으나, 민속촌 사업의 성격상 국가나 지자체 이외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심의 신청을 받는 경우도 가능하였다.³⁷⁾ 심의위원회는 민속촌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 및 설계를 검토하고, 학술적·기술적 지도를 하며, 민속촌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였다.

1973년 5월 4일에는 민속촌 건립 사업계획서³⁸⁾ 심의가 접수된다.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보라리에 20만평의 부지에, 건설자는 ‘(가칭)기흥산업주식회사’였다. 자금조달방식

그림 2. 보라리 전경(동아일보, 1973.7.28)

33) 당시 1972년 10월 31일의 ‘구미 각국 민속촌에 대한 세미나’부터 청와대 경제 제3비서실의 관계관이 참석한 기록이 보이며, 1972년 12월 28일의 ‘민속촌 건립에 관한 세미나’에는 양윤세 청와대 경제 제3수석 비서관이 참석하였다.

34) 청와대비서실. 1973. 3. 14. 민속촌 건립계획

35) 행정지도위원회는 내부부 지방국장,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교통부 관광국장, 문공부 문화재관리국장, 산림청 조립국장, 경기도 부지사를 위원으로 하였다. (교통부. 1973. 4. 3. 민속촌 건립에 관한 회의 개최 결과)

36) 위원은 민속, 고건축, 고미술, 조경 등에 조예가 깊은 사계의 권위자 중에 위촉되었으며, 양재연(중앙대 교수, 민속·예능), 이두현(서울사대 교수, 민속·예능), 예용해(한국일보 논설위원, 민속·공예), 진홍섭(이대 교수, 고미술·조경), 맹인재(문화재전문위원, 고건축·고미술·조경), 장주근(문화재전문위원, 민속·신앙·의례), 김동현(문화재전문위원, 고건축) 등이 위촉되었다(문재 73-19. 1973. 4. 30. 민속촌 건립 심의 위원회 구성. 참조).

이들 위원들 대부분은 당시의 민속자료 조사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특히 맹인재 위원의 경우 아산 맹씨행단 보수(1964), 삼척군 도계읍 신리 조사보고서(1974), 양동 및 하회마을 조사보고서(1978) 등에 참여하였고, 장주근 위원의 경우 구례 윤조루 조사보고서(1968), 술정리 하씨 초가 조사보고서(1968) 등에 참여 하였다.

37) 실제로 경상북도에서는 안동댐 수몰지역 이전 민속촌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자, 문화재관리국장에게 맹인재 전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문공 1080-1474. 1973. 9. 17. 문화재 전문위원 파견요청 참조)

38) (가칭)민속촌건립준비회(1973). 사업계획서

을 보면, 총 투자액이 9억1,450만원인데, 이 중 기흥산업의 투자액이 6억1,450만원이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73년도에 1차로 1억의 용자금에 배당되어 있으며, 74년도에 2차로 2억원의 용자 기대금을 예상하고 있다.

생활양식 소개(紹介) 시설로서 양반가 1동, 평민가 70동을 계획하였다. 양반가는 보은 선병국가를 표본으로 하고, 양반 1세대에 종북 10세대가 있는 생활양식을 실연하고자 하였다. 평민가는 농어민가 29동, 생활민속품 제작가옥 10동, 민속공예품 제작가옥 23동, 교육 및 무속가(巫俗家) 4동, 인간문화재 입주가옥 4동을 계획하였다. 사업 계획안에는 각 가옥에 전시될 관련 민속 물품도 열거되어 있다. 그 밖에 전시시설로 유물관 와가(瓦家) 1동, 경회루를 본뜬 별당 1동, 우정충국을 본뜬 우편국 1동이 계획되었다. 공연장은 양반가 내에 1개소, 야외공연장으로 2개소가 계획되었고, 각종 민속놀이를 위한 놀이터 14개소, 저수지 1개소도 계획되었다. 민속촌 완공 후에 실제로 주민을 입주시킬 예정이었으므로, 거주민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촌장집과 마을의 공동시설로 욕장 2개소, 순농가(純農家)를 위한 경작지도 계획되었다.

기존의 마을은 철거될 예정이었으므로 공사비에는 23세대의 철거를 위한 비용 2,300만원과, 새로 입주할 70세대를 위한 보조금 7,000만원이 책정되었다. 입주자에게는 보조금과 노임이 주어지며, 그 일부를 퇴촌 시를 대비하여 일부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다. 종업원들의 경우 2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여야 하고, 전통 복장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그림 3. 민속촌 배치도(민속촌 사업계획서, 1973. 8)

3. 계획안의 수정과 완공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5월 7일에는 제1차 민속촌 건립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양재현 위원, 부위원장으로 이두현 위원이 선출되었다. 위원회에서는 계획안에 대해 우선 민속학적이지 않은 용어를 수정하는 것과, 민속촌 내부의 재래 민가 양식의 전시에 있어 신축건물보다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세부 사항은 분야별로 별도 사전심의 받는 것이 의결되었다. 5월 9일의 교통부의 행정지도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업자가 각 부처에 사업계획서 및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대한 각 부처별 행정 지원이 논의되었다.

1973년 8월 22일의 1차년도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때 제출된 『민속촌 사업계획서』에는 1차 회의의 지적사항이 일부

표 2. 민속촌 계획안의 변동내역

1973년 8월 계획안			1974년 4월 변경안	
투자액	15억 6천만원		17억 9천만원	
건설기간	1973년 8월~1974년 4월		1973년 8월~1974년 6월	
시설내역				
양반가옥	1동	99칸 와가, 공지 4,000평, 건평 300평	1동	건평 250평
민가	105동 (추가)	농어민가(18), 상가(11), 음식점(12), 여각(7), 생활도구제작가(16), 민속공예품제작가(37), 교육무속가(4)	115동 (추가)	농어민가(21), 상가(0), 음식점(6), 여각(0), 생활도구제작가(28), 민속공예품제작가(48), 교육무속가(2) (전시가옥 10동 증가)
공연장	4개소	옥내 1개소 (99칸 별당내 설치) 옥외 3개소 1,500평	3개소	규모 축소
유물전시관	1동	와가 370평	변동없음	
저수지	1개소	25,000평 낚시터, 뱃놀이터	삭제(2차공사로 연기)	
우편국	1동	15평(와가), 우정국모형(단청)	변동없음	
사찰	1동	암자규모, 공지 300평, 건평20평	삭제	
사정	1동	건평 20평	변동없음	
누정	1동	건평 30평	변동없음	
모정	30동	건평 (3~10평)	변동없음	
와정	5동	10평 규모	3동	
위생시설	7동	욕장(1), 변소(6)	6동	욕장(삭제)
	6개소	우물(5), 석빙고(1)	5개소	석빙고(삭제)
조경시설	4개소외	교량(2), 연못(2), 임벽 외	변동없음	
사무실	3동	사무실 100평, 매표소 20평, 경비실 10평		
기타시설			10동	안내관 등

수정되어 있다.³⁹⁾ 마을 중심의 99칸 ‘양반가옥’은 수원의 양승관씨 집을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민가는 105동으로 늘어났으며, 건축형식도 초가로 명시되었다. 무속 관련 시설이 위치하였던 산 위에는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경희루를 본뜨기로 한 별당 계획은, 30평의 누정 1동을 두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전체 민속촌에 모정(茅亭) 30동과 와정(瓦亭) 5동이 배치되었다.

2차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다. 산 기슭에 내를 끼고 남향하는 자연촌락을 모델로 하는 좀더 자연스러운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현실조건을 고려하여 산에는 산촌, 강에는 강촌을 두고, 중앙에는 도시성(都市性)을 띤 시장을 두는 배치에 연회장, 음식점, 숙박은 따로 구역을 정해 배치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민속촌 입구에 느티나무, 마차, 육의전, 주막거리 등을 설치해 입구의 느낌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2차 심의위원회 역시 우선 전체 시설을 승인하고, 세부는 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위원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위의 계획안을 골자로 한 민속촌 건립사업계획이 1973년 9월 18일에 승인되었다.

그림 4. 민속촌 조감도(민속촌 사업계획서, 1973. 8)

민속촌은 가옥철거를 마치고, 1973년 9월 30일에 착공되었다. 착공 이후에도 1974년 4월 20일에 추가적인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고, 1974년 4월 29일과 5월 6일, 두 차례의 2차년도 심의위원회가 있었다. 사업계획 변경안에서는 와가가 5동, 초가가 115동으로 늘어났으나, 여각(旅閣)이 삭제되었고, 공예품의 종류도 축소되었다. 사찰의 건설과 주민시설 일부도 삭제되었다. 초가 전시가옥을 10동 따로 두기로 한 것은 위원회의 자문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상세한 시설계획 사항은 <표 2>와 같다.

심의위원회는 2차년도의 1차 회의에서 현장의 상황을 살핀 결과 새로 지은 집들이 너무 많아 고색이 풍기는 전

그림 5. 한국 민속촌 배치도(사업계획서, 1974. 4)

통적 마을 조성이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3-4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한 위원은 자문의 무용성을 지적하면서, 교통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1,2년 안에 완공하려는 교통부의 태도가 문화재관리국 측과 마찰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민속학자를 고용하여 상설자문을 구하는 것과 입촌자 문제 등 개촌 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연구와 대책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2차년도의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1) 상가와 공방구역, (2) 각종 민가군과 공연장 구역, (3) 99칸 반가와 연못 구역, (4) 유물전시관 구역, (5) 하천 건너 어촌 민가구역으로 이루어진 민속촌의 배치가 다소 혼합된 느낌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재래 자연부락 형식보다는 민속관광촌의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의 건조물을 더 이전·모조하고, 전라도의 모정, 각 지방의 공덕비, 효자각 등을 이전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각 가옥에 대해서는 처마곡선이나 초가의 지붕형태가 지적되었고, 민가의 유형으로 볼 때 외통집 중에서 ㄷ자와 ㅁ자 가옥이 전시되지 않은 점과, 양통집의 중부형, 남부형, 북부형이 현재 민속촌의 각 지역 민가양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질문사항 중에서는 공방과 그 가옥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있었고, ‘한국 민속촌’ 측에서는 공방이 있는 그 부락에서 대표적인 가옥을 실측하여 신축한 것을 공방 건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들은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두 반영하기는 힘들므로, 교통부의 심의요청원안을 승인하고, 유의 및 개선사항은 단계별로 실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1974년 10월 3일에 ‘한국 민속촌’은 마침내 개관하게 된다. 민속촌은 옛생활의 정취를 살리고 있다고 광고되었고, 각도의 특색을 살린 초가들이 전시되어 ‘평남집’, ‘충남집’, ‘경북집’ 등 지역명칭의 이름을 달았으며, 경북집에는 서당, 전북집에는 죽제품 공방 등 가옥들은 지역별 특색과 연결하여 꾸며졌다. 주민으로는 전남 담양의 김병곤씨 가족 및 16가구가 입주하였고, 도자기 명인 등 1백여 명의 민속기능자는 출퇴근하게 하였다.⁴⁰⁾

39) 기흥관광주식회사(1973. 8). 민속촌 사업계획서.

4. 전통가옥 고증의 문제

개관 이후에 ‘한국 민속촌’은 호황을 이루었다. 당시 신문에는 주말의 여가를 위한 정보란이 있었는데, 이 곳에 많은 관광회사들이 서울, 인천, 부산 등지로부터의 고속버스를 이용한 ‘한국 민속촌’ 관광코스를 선전하였다.

그러나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되었던 민속촌 가옥의 고증 문제는 개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74년 12월에는 교통부에서 ‘한국 민속촌’에 고증학자가 상근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시달하였다.⁴¹⁾

1975년에는 ‘TV사극의 고증’이라고 하는 MBC와 민족문화고증회의 공동세미나에서 서울대 권오돈 교수에 의해 ‘한국 민속촌’ 가옥의 대표성과 진실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⁴²⁾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민속촌 내에 추가로 지어진 관가에 대한 기사에서는 경우에는 엄격한 고증을 거쳤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⁴³⁾ 그러나 당시 고증문제의 초점은 민속촌 내의 가옥이 얼마만큼 일반적인 조선시대의 민속이나 상류주택과 민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전·재현된 가옥이 얼마만큼 원래의 가옥과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지적되지 않았다.

1978년 문화재관리국에는 민속촌고증위원회가 조직되고, 2차에 걸친 회의가 있었다. 문제점 지적 사항에서는 가옥의 실(室) 구성이 실제의 전통적 생활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었고, 생활 기물의 배치나 가옥의 유지관리 상황 등이 지적되었다. 각 가옥에 대해서 원래의 원형과의 고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하였다. 교통부는 이 고증결과에 대해 민속촌에 시정하도록 하달했고, 1978년 11월에는 운영개선방안⁴⁴⁾이 마련되었다.

민속촌 내에 있는 집들 중에 계획안에서 집의 원형이 분명히 밝혀진 집은 ‘99칸집’으로 불리던 중부지방 양반가옥이 유일하였다. 이 집은 수원시 남창동 95번지 일대에 있던 양성관의 집을 옮겨온 것이다.⁴⁵⁾ 그러나 이 집도 어떤 절차를 거쳐 매입, 이전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속촌 계획안들에서 보이지 않는다. 다른 전시가옥이나 초가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고증위원회에 ‘한국 민속촌’에서 제출한 답변보고서에서 <표 3>와 같은 몇몇 집들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고서의 원형추정은 정확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집들은 새로 지은 것으로 보이며, 개성지방 가옥의 경우에서처럼 북한 지방 가옥의 경우에는 일제시기의 도면자료를 참고하여

표 3. 한국 민속촌 전시가옥의 원형

전시가옥명	가옥의 표본 혹은 참고출처
토호의집	남원의 지방에 현존하고 있는 건물을 모방한 것
양반집	1900년 이전에 건축된 수원시 남창동 소재의 양성관씨 가옥, 종가, 해체이전
관서민가	평남 안주군 신안주면 운학리 소재의 건물을 자료로 재현
관서지방농가	평북 선진군 신천면에 소재되어 있던 건물을 자료로 재현
안동지방	경북 안동지방에 있었던 실건물을 실측하여 재현한 것
영남(서북부)농가	경남 김해군 가락면 봉림리 소재의 건물을 실측하여 재현
영남지방농가	경남 김해군 가락면 죽동리 소재의 건물을 실측하여 재현
호서북부민가	충남 공주군 신상면 소재의 건물을 실측하여 재현
호남영광지방	전남 영광군 영광읍 입석리 소재의 건물 실측하여 재현
함북북청지방	함남 북청군 소재의 건물을 재현
개성지방민가	개성군 개성읍의 자료 의거 재현한 것임 자료-조선부락조사 -한국건축양식론
함북성진농가	함북 함흥 수북면 소재의 건물자료를 재현
관북북청지방	함남 북청 소재의 건물자료 재현한 것임
해서지방지방	해서지방의 소농의 집을 재현한 것

주식회사 한국 민속촌(1978), 한국 민속촌고증의 문제점과 민속촌의견을 바탕으로 제작성

복원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한국 민속촌 사업에서 나타나는 전통 재해석

1) 마을 공간의 재해석

한국 민속촌의 계획은 시간과 자금의 촉박으로 초기의 아이디어만큼 진정성 있는 민속촌을 만드는 데에는 실패하였고, 이는 개관 당시에도 문제시 된 부분이었다.⁴⁶⁾ 그러나 프로그램의 구성과 아이디어에서 그 전통 마을에 대한 해석을 읽어낼 수 있다.

부지가 확정되기 전의 계획안에서는 산지와 평지, 수변공간이 모두 있어 산촌, 농촌, 어촌을 모두 재현할 수 있는 대지를 상정하였다. 실제의 용인군 보라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입지하던 배산임수의 지형이었다. 원래의 마을이 있던 부근에 주요 전시가옥을 배치하고, 수변공간에는 제주도과 울릉도민가, 산기슭에는 강원도 화전 민가와 사찰, 점술집 등의 종교시설을 배치하는 초안이 작성되었다.

서로 다른 가옥을 하나의 ‘마을’로 묶는 데에 있어서는 몇 가지 원리가 제시되고, 이들은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 하나는 소수의 기와집 주변에 초가가 둘러싸는 한국의 일반적인 씨족마을의 구성 원리를 따르는 것이었다. 마을 중심에 놓이는 ‘99칸 집’은 일종의 마을의 종가와 같은 역할이었다.

또한 산기슭에 남향하여 위치하며, 내를 끼고 있는 농촌 마을의 가장 일반적인 배치가 제시되었다. 주거영역뿐 아니라 경작지와 같은 생산영역, 그리고 서낭당과 같은 의식영역도 마을의 중요요소로서 계획에 고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6) 동아일보. 1973. 10. 15. 전통문화 변질 우려, 민속촌 건립 붐의 문제점.

40) 동아일보, 1974. 10. 3. 경기도 용인군 ‘민속촌’ 지상 관광·퇴살된 옛 생활의 정취

41) 동아일보, 1974. 12. 6. 교통부서 시달, 용인 민속촌에 고증학자 상근.

42) 동아일보, 1975. 7. 30. 한국의 고건축과 고의상. 경향신문, 1975. 7. 31. TV사극의 고증-MBC·민족문화고증회 세미나.

43) 경향신문, 1976. 7. 24. 이조 때 관가재현 용인 민속촌서 상량

44) 한국 민속촌(1978). 민속촌 운영개선방안 세부추진계획.

교통부(1978.11.). 한국 민속촌 운영개선방안.

45) 善生永助(1929). 生活狀態調査 (其一) 水原郡, 朝鮮總督府에 ‘수원읍내상류주택’으로 사진이 실린 집.

그러나 문제는 상업 관련 시설이었다. 전통시대의 농촌에서 시장은 마을 안이 아닌 바깥, 읍내에 위치하는 것이었으나, 전시가옥에서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는 시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판매와 결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과거의 수공업은 전시가옥에서 다양하게 재연되었고, 놀이마당도 펼쳐졌다. 그러나 상업시설은 따로 입구에 배치되었으며, 시전 구역도 별도로 구성되었다. 이들 시설은 모두 한옥의 외관을 따라 지어졌다.

따라서 실제의 민속촌 배치구성은 입구 쪽에 매표소와 상가영역이 조성되고, 전시영역은 대지의 지형적 조건에 따라 농촌식의 배치를 주로 하되 산지와 물가에 산촌의 주거와 어촌의 주거를 위치시켰으며, 공방이 밀집된 영역, 공연장과 전시가옥, 99칸 반가와 연못, 음식 판매 지역 등으로 기능에 따른 구역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전혀 기존의 마을과는 다른 것이었다. 가옥뿐 아니라 정자와 놀이공간이 배치되었다.

그림 6. 민속촌 배치 구성(1974 배치도에 표기)

A: 매표소(입구)와 상가영역, B: 입구와 공방영역, C: 공연장과 민가영역, D: 반가와 연못영역, E: 유물전시관, F: 어촌 민가영역, G: 산촌 민가영역

각 공방은 경상도 서당집이나 전라도 죽제품공방 등 각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나, 전시가옥의 외형에서는 제주도 민가나 화진민 가옥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성이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다.⁴⁷⁾

한국 민속촌은 시대적으로는 ‘이조(李朝)’시대, 지역적으로는 한반도 내의 주거 모형을 전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민속촌’의 각 가옥은 여러 지방의 가옥을 모방하고 있으나, 그 가옥들은 원래의 맥락에서 이탈하여 하나의 새로운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⁴⁸⁾ 이는 기존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테마파크일 뿐이었으나, 광고에서는 민속촌이 과거를(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북부지역의 집에서 제주지역을 아우르는 민가와 반가, 전통놀이와 생산품이 하나의 한국의 민속 마을이라는 테마로 재구성됨으로써 과거의 주거는 새로운 오락시설이

자, 국가적인 하나의 문화단위로 통합되어 인식되게 되었다. 국가에 의해 주도된 이러한 민속촌의 전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환기시키고⁴⁹⁾, 다양한 전통주택에 대해 학습하게 하였다.

2) 새로운 한옥의 설계

한국 민속촌에는 입구에서 전시가옥 영역에 이르기 전의 사이 공간에 상가구역이 마련되면서 한옥의 형식으로 판매시설, 사무실, 공연장 등이 지어졌다. 이것은 현대적 기능에 맞춘 한옥의 사례로서, 전통건축 스타일을 차용하였으나 공간이용의 방식과 평면형을 새로 개발한 사례이다. 이들은 한옥의 응용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이 중에서 근대기의 한옥에서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온 것은 우정충국 건물 한 동뿐이다. 우정충국을 복제하여 지으면서, 이곳에 1974년 민속촌 우체국(신갈우체국 민속촌분국)이 설치되었으나 현재 내부가 바뀌어 어떤 식으로 내부를 이용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입구(매표소)에서 들어와 처음 마주보게 되는 안내관은 정면 7칸의 일자 한옥을 지어 사용하였다. 관리사무실과 변소는 ㄱ자형 한옥으로 지어 박공진입하게 하였다. 또한 두 번 꺾여진 한옥을 지어 옥내공연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정면 중앙에 큰 박공을 가지는 ‘ㄱ’형 평면의 음식점 건물이 지어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박공을 정면으로 하고, 마루의 높이를 입식에 맞추어 낮춘 외관과 낮은 지붕 물매는 시각적인 비례에 있어서 어색함을 주는 등 건축적 완성도가 높지 못하다. 또한 관리사무소 정도를 제외하고는 초기의 프로그램들이 유지되지 못하고 현재는 대부분 일반적인 판매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7. 우정충국을 본뜬 우체국 (현 특별전시관)

그림 8. 안내관(현 전통찾집)

그림 9. 옥외공연장(현 기념품점)

47) 심의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대표적인 평면형을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이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만약 이 건의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건축의 특성상 실제 건물의 재료에 따른 외관의 차이는 와가(초가)의 이분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48) 각 유물이 원래의 맥락에서 벗어나 전시의 논리에 따라 새로운 장소에서 재구성 되는 것은 모든 박물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49) ‘우리 겨레가 이 땅에서 유구한 역사를 누려오는 동안 하나의 특유한 민족성과 독창적인 민족 문화를 이룩하였다’라는 부분에서 당시 전통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이운상(1974. 10. 3). 민속촌 세운 뜻(한국 민속촌 내 석비에 새겨져있음)).

그림 10. 음식점(현 음식점)

그림 11. 1974년의 민속촌 전경(출처: 국가기록원)
 A: 입구(매표소), B: 관리사무실, C: 안내관, D: 변소, E: 음식점,
 F: 우정충국, G: 옥내공연장

V. 결 론

1972~1974년의 ‘한국 민속촌 개발 사업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민 교육의 목적이 있었으며,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로 서울의 교외가 확장됨으로써 가능해진 사업이었다. ‘한국 민속촌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청와대의 주도로 교통부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술적 자문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담당하였다. 문화재관리국의 정책적 의도는 전통 생활문화 보존의 맥락에서 당시에 급격히 변화가던 전통 생활양식을 조사하고, 보존하는 사업과 연계되는 일종의 건축 및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으나, 관광수익을 위해 정부가 민속촌의 조속한 완공을 재촉함으로써 건축물의 이축과 복원과정, 전시내용이 엄밀하게 검증되고, 전체 구성의 완성도가 높은 민속촌의 실현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민속촌’의 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전통시대의 주택을 이축하거나 재현하여 전시하는 종합적인 야외 건축박물관이 시도되었으며, 남북을 통틀어 한반도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주택을 하나의 ‘마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50년이 지나지 않은, 심지어는 현존하기도 하는 가까운 과거의 주거가 대대적으로 전시된 사건일 뿐 아니라 건축적으로는 전통을 표방한 관광단지·주거단지 개발의 이른 사례로도 그 중요성이 있다.

1970년대 한국의 민속촌 사업은 처음부터 관광수익을 목적으로 한 개발 사업이었으나, 전통문화의 보전과도 연결되는 사업이었다. 이 시기는 빠른 근대화로 인해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시기였으며, 한편으로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각 지역의 전통적 경관이 변해가던 시기였다. ‘한국 민속촌’이 개장한 1974년 전후에는 한쪽에서는 지방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농어촌 표준주택안이 발표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민속마을 보존, 전통가옥의 문화재 지정 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의 민속 경관 보존이 새마을 사업의 일환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중흥(民族中興)’을 위해서는 못사는 농촌을 개량하되, 민족의 문화가 깃든 전통 주거의 정취 역시 보존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성과는 모두 보여줄 만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단합을 위해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통문화의 상품화에 힘을 쏟았다. 전국 각지에 ‘민속촌’이 생겨났으며, 그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한국 민속촌’ 건립사업이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관광지의 범위는 서울이나 부산, 제주도를 넘어 교외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부지 확정 전부터 ‘민속촌 계획안’에는 그 입지를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서울 교외지역으로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외국인 관광정책에 있어서는 경주보문단지, 제주중문단지 등의 개발에 앞선 사업이었다.

한편 내국인에 있어서는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가는 민속촌 여행은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민속촌에서 전통목조주택은 완전히 근대주거와 단절된 유물로서 전시되었다. 한반도 지역을 아우르는 각 지역을 포괄하는 주택과 생활을 전시함으로써 민속촌은 같은 민족, 국민으로서 한국인의 문화적 공감대를 교육하는 오락시설이 되었다. 이는 군사정변에 이은 유신헌법의 선포로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사회에서 ‘민족’을 매개로 국민의 동의와 단결을 얻어내고자 하였던 ‘국민 만들기’의 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질감과 과거에 대한 향수의 자극은 정치적 혼란, 경제개발에 따른 경제적 격차, 빠르게 변해가는 생활양식에 대한 불안에 대한 위안물이 되었던 한편, 전통적 주거지와 그 생활방식은 급속히 현재의 주거가 아닌 과거의 주거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새로 놓인 고속도로를 달려 버스로 도착하는 서울 교외의 민속촌은 서울도심과 민속촌 즉, 근대와 과거의 대비를 더욱 강조하였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야스 노부쿠니 (2007). 일본근대사상비판-국가·전쟁·지식인. 서울: 역사비평사.
2. 공제욱 (2008).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서울: 한울.
3. 김용환·오석민 (1995). 전통문화의 보존과 민속마을. 비교민속학, 12, 43-86.
4. 문화재관리국 (1972).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5. 문화재관리국 (1974).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6.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과 (1978). 중요민속자료(민속마을, 보호구역 지정) 관계.

7.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1과 (1974). 민속촌관계자료철.
8.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2과 (1979). 민속촌 고증관계.
9. 임지현 · 김용우 (2004). 대중독재1: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서울: 책세상.
10. 전재호 (1998).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 83-106.
11. 한국 민속촌 (1979). 한국민속. 서울: 양서문화사.
12. 한국 민속촌 학예연구실 (2005). 한국 민속촌.
13. Chappell, E. A. (1999). Open-Air Museums: Architectural History for the Mass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58(3), 334-341.
14. Murtagh, W. J. (2006). *Keeping Time: The History and Theory of Preservation in America*. 3r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15. Rentzhog, S. (2007). *Open Air Museums: The History and Future of a Visionary Idea*. Östersund: Jamtli Förlag.

접수일(2010. 7. 23)

수정일(1차: 2010. 10. 18)

게재확정일자(2010. 11. 22)